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8호 [부록 제 25116호] 주제 104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지난 35년동안 우리 당이 주체혁명완성투쟁의 만년토대를 다지는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위대한 당의 기치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 력사적인 대회이다.

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온 나라는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있다.

10월의 대추장전의 높은 연단에서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우리 인민에게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새로운 총공격전에 천만군민이 떨쳐나섰다.

우리 황철로동계급은 이미 당창건 70돐을 혁명적대장사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비하고 철강제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승리의 직선주루에 들어선 황철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이글거리는 용광로의 붉은 쇠물은 그대로 어머니당대회를 최상급대의 성과로 맞이하려는 우리들의 끓는 피이고 기세처럼 울리는 산소분리기의 우렁찬 동음은 주체의 쇠물로 당을 받들려는 황철로동계급의 심장의 맥동이다.

우리는 지겹잖 다지고자하는 생산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철강제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 총정의 걸음을 다지면서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총결합할것을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에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믿음 따르고 용위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살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4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력사의 가장 준엄한 시련을 뚫고 전화위부의 기적을 창조하며 세계를 경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류폐없이 교활하고 악랄하였지만 우리의 일심단결은 오히려 천백배로 다져지고 군사경제적 토대는 비상히 강화되였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러보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혁명적대장군이며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정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이다.

조선로동당의 절대적인 존엄을 옹위하고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선봉에서 붉은기울을 높이 들고 내달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로동계급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이 성스러운 부름속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에서 자라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대로 닮은 조선로동계급에 대한 찬사와 기적이 함축되어있고 나라의 만아름, 주체혁명의 핵심력량으로서의 력사적사명을 다해나가기를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이 어려졌다.

력사무대에 로동계급이 등장하여 수백년, 이장구한 나날에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고 위대한 수령들을 어버이로 모시며 영원한 혼연일체속에서 혁명해나가는 우리들처럼 긍지높고 행복한 로동계급은 없었다.

우리는 이 고귀한 정호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랑심, 백철불굴의 투쟁정신과 선구자의 용감성을 지닌 조선로동계급의 기개를 높이 떨쳐야 한다.

우리의 전세계 로동계급이 바로 그렇게 투쟁하였다.

빈터에서 민주의 새 나라를 세우고 제머미우에서 사회주의공명국가로, 또다시 고난의 언덕을 넘어 강성국가의 최후승리여로, 이 간고한 길에서 참기 어려운 시련과 난관, 가슴아픈 희생과 목절인들을 그 일하였던가.

그때마다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당중앙을 앞장서서 결사옹위하고 거세한 증상의 동음으로 우리 조국에 비약의 승결을 더해 주었다.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환적인 시기마다 열리었던 당대회를 일심단결의 위대한 승리로, 창조와 건설의 전성기로 빛내였다.

당 제6차대회를 앞둔 장엄한 시기에도 100일 전투에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뚸는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1980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람을 안고 당대회를 맞이한 우리들이 아닌가.

이제 당 제7차대회까지는 5개월 남짓한 기간이 있다.

이 나날은 당의 부름이라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 힘이 총폭발할 때 어떤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할 참으로 중대한 시기이다.

우리가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은 애국충정의 담방울이 스며있는 량심의 결정체, 의리의 결정체가 되어야 하며 자기 한에서 가장 뜻깊고 값진 로력적선물로 되어야 한다.

《동투는 어떤 로력적선물을 안고 어머니당대회를 맞이하였는가?》이 물음에 덧붙이, 자랑스럽게 대답할수 있게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빛내어 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적인 신념, 이것이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원동력이다.

우리 황철이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비약의 호마에 태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었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8차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8차례나 우리 황철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급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에 의거한 철강제생산공정을 꾸려주시기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황철을 사회주의건설의 1211고지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황철로동계급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면서 오늘날 온 나라 인민의 력사적 숙원이었던 주체철생산체계완성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백옥의 보검으로 물려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힘을 주시며 따라 나아가갈 때 그 어떤 시련의 난파도도 헤쳐갈수 있고 반드시 갈살 날이 온다는것이 70년의 장구한 투쟁속에서 우리 황철로동계급이 체득한 철의 진

리이다.

하늘도 이겨내는 기적의 원천이 불굴의 정신력이라면 그 정신력의 원천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여!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드림없는 신념을 간직하고 로동계급의 무쇠마치로 원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위하며 우리 당의 백옥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자!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폭풍쳐 내달리는 맹렬한 돌격정신, 이것이 오늘의 대고조전투장마다에 차넣어야 할 전투적기질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마다에서 후세에 길이 빛날 위대한 시대정신, 위대한 시대속도를 창조하였다.

천리마속도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한 1950년대와 60년대가 그러하였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70년대와 80년대가 그러하였다.

오늘의 세대가 그때의 영웅세대들의 위훈을 두고두고 추억하듯이 후대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빛나는 영웅사사의 창조자로 우리 세대를 영원히 추억하게 최대의 속도로 질풍쳐 내달리자!

우리 당이 바라는것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웅군한게 도시와 맞먹는 미미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운 인민군대의 단속대의 건설속도이며 10년동안에 한 일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를 단 120여일동안에 해제해 백두대지에 청년장군의 대기념비를 일떠세운 영웅청년들의 돌격정신이다.

전국의 로동계급이여!  
하늘을 날은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대지를 박고 오르는 위장속도로 오늘이 다르고 매일이 다르며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라지는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자람한 모습을 빛내어나가자!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2016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지고보낼로 앞장서 완수하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속이 새겨져 있는 단위들이 수령의 유훈판철전, 당쟁책옹위권의 앞장에 서자!

우리 대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관철되지 못하는것을 보고하도 속수무욕으로 앉아못게는 무뎠한자들, 자그마한 성과로 자만자족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보수주의자들, 난관앞에 주저앉아 우는소리만 하는 패배주의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로동계급의 억센 주먹으로 우리의 전진에 제동을 거는 온갖 잡귀신들을 쳐갈기며 5월의 결승선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자!

굳어진 기존관념, 경직된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새 기준, 새 기록, 새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자!

자력갱생에 우리의 살길이 있고 기적창조의 지평대가 있다.

우리를 기어코 달려 죽이려는 적들의 책동은 극도로 이르고있지만 자력갱생하러는 우리 로동계급의 신념은 더욱더 굳어지고있다.

오늘의 시대는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술, 우리의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는 자력갱생의 벅한 시대다 아닌가.

자기 힘을 믿고 펼쳐어나라 당이 준 임무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훌륭히 수행한 국방공업부문과 김중대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투쟁성과가 온 나라를 무한히 고무해주고있다.

우리 황철로동계급도 이번엔 경험과 기술력량이 부족했지만 주체회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수 없

다는 불굴의 의지를 안고 방대한 우리 식의 용광로건설과 새로운 합금철생산기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완전무결하게 해졌다.

조선로동계급의 자존심을 걸고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호소한다.

정신집중 없이 남의것을 넘겨다보며 그 무엇에 기대를 걸고 살아나가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로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수입병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문제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만이 해결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잊지 말고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국산화의 된바람을 일으키자!

세계를 내다보며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려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포부이며 목표이다.

오늘의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로동계급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면서 현대과학기술을 철단을 개척해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직접적담당자들이다.

과학기술을 외면하면 시대의 락오자가 된다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집단이 떠받드는 로동자본평가, 창고고인의 명수,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가 되자!

내장과학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 단위의 기술현대화에서 한몫 단단히 하자!

누구나 전민과학기술인재회의 거점인 과학기술보급실을 적극 활용하고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어 실현기행의 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하자!

새로운 총공격전의 신조항수성은 올렸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은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 지식인들로부터 청년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할 전인민적인 총결성사건이며 정치사상전선과 경제전선, 과학기술전선과 문예예술전선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할 전국구적인 총동원전이다.

강성국가건설의 거세한 투쟁속에서 부문과 부문, 공장과 공장, 직장과 직장이 서로 도와주면서 경쟁하는 집단적혁신의 불바람,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계에 일기키자!

인민경제 선봉부문과 기간공업부문 로동계급이여!  
경제강국건설의 척후병, 개척자라는 부름을 딸로만 웨치지 말고 대고조승리의 돌바람을 열어나가는 투쟁속에서 우리 당이 안겨준 그 믿음에 보답해나가자!

천리마의 고향 강산과 김철, 우리 황철이 앞장에 떨쳐일어나 주체적인 철강제생산의 동음을 세계에 울려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국건설의 전구대에서 요구하는 철강제를 광활 생산보장하자!

전력과 수력발전부문에서는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병답게 1kW의 전력, 1kg의 석탄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여 대고조전역들에 보내주자!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인민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을 세우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 같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물동량을 제때에 실어나르자!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수, 경제발전의 밑뿌리라는 높은 자각을 안

고 철단기계들과 설비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생산하자!

남흥과 흥남, 2.8비날론을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우리의 원료, 우리의 자원에 기초한 자립적인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경공업부문과 농업전선에 필요한 원료와 비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자!

우리모두가 뜻깊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어머니당에 드려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인민생활향상대장군에서의 커다란 성과이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에서 돌바람을 열어나감도록 우리 로동계급이 억센 힘으로 떠밀어주자!

농업전선의 병기창마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고 더 많은 농기계와 부속품을 생산하여 사회주의혁명병들에게 보내주자!

수산부문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어로전사들처럼 한몸이 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몸이 되어 물고기사태를 안아 오모서 온 나라 바다와 포구들에 호רות한 《이제 어경》을 펼쳐놓자!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자!

건설부문의 로동계급은 새 세기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되는 공장들과 생산기지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릴수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더 많이 일떠세워 건설의 대대병행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자!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며 자기 열리, 자기 고향, 자기 마을에 푸른 숲이 설레이게 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배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신통부주전투에서도 우리 로동계급이 맨 앞장에 서자!

백두산청년장군의 주인들인 새 세대 로동계급에게 절결히 호소한다.

천후의 세대미도 헤치고 고난의 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이겨낸 전세계 로동계급의 신념의 바통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 청년로동계급이다.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인축부대로, 청년장군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군시대 청년영웅의 기상과 용맹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자!

당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장에 용약 달려나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상을 들뜨이놓는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자!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펼쳐 휘날리는 성스러운 당기를 보라!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으로 새겨져있는 우리 당마크의 맨 첫차리에 우리 로동계급을 상징하는 미치기 새겨져있다.

열렬한 총공격의 의리의 결정체인 그 억센 마지를 틀어쥐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

모두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전 앞으로!

주체104(2015)년 12월 3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리동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수 박사인 체육과학원 부원장 리동규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3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스 쉘 신문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판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판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을 치하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로공들이 불리한 어항조건에서도 물고기사태를 알아왔으며 안해들도 모두 떨쳐나 물고기 가공전투를 벌리고있는데 애국자가 장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8월 25일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고사령관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귀중한 혁명전투, 참 좋은 동지들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환구망, 국제방송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 일본의 교도통신, 미국의 인터넷데일리 《구글뉴스》, 도이첼란드판예만 인터넷데일리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즈베즈다TV방송, 인터넷신문 가제마, 루,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보도망, 청년망, 방송망, 평명망, 동북보도망, 이란신문 《이란 뉴스》, 세네갈신문

##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글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베닌에서는 강연회가, 가나에서는 도서전시회가 10월 20일과 11월 6일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강성명명하는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도서전시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와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베닌 《김정일장군 만세》전북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회장 해수 표호비는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기적이었던 백두산밀영에서 1942년 2월 16일에 탄생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김정일각하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의 위업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어나가실 향토성이라고 칭송하면서 밀림속의 나무들과 그의 탄생을 알리는 글자들로 새기였다. 선군정치로 제국주의 완공된 미제과학자거리를 돌아보 주의를 수호하신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가나전국회사 사장 돈 아씨를 비롯 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 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시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류사주 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가네군 알마미 싸오리 투레병영에서는 강연회가,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아디스 케메라지부, 예카지부, 불레지부, 굴말레지부에서는 토론회가, 에티오피아 기쁨병영에서는 좌담회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였다.

가네군 알마미 싸오리 투레병영 연구특공대대장은 《인민이 못 잊는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인민의 행복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각하께서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서거하신 때로부터 4년이 되어온다.

김정일각하의 서거 4돐에 즈음하여 그이에게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김정일각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위인중의 위인이다.

김정일각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나온 나날은 그이에 대한 만민적애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며 그이에게서 배울수 있는 교훈이 끝없이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김일성주의적

혁명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며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조선을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로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압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빛내이시였으며 조선통일의 리정표인 6.15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치시였다.

김정일령도자는 한평생 인민대중속에 계시며 오로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는 통성명명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아디스 케메라지부 소조 책임자는 토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이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 기쁨병영 원장 등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처럼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서거하신 령도자라는 세계는 알지 못한다. 선대혁명사

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어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언급하였다.

※ ※ ※

방글라데시 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 11월 22일 부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생하신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2011년 12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자이신 김정일각하의 서거로 세계는 가장 훌륭한 정치가를 잃었다.

김정일각하는 정녕 위인중의 위인이다. 그는 김일성주체사상 창시자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온 위대한 정치가로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 진행,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관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은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총공격전선봉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비상한 열의에 넘쳐있다. 혁명의 년대마다 철강재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황철의 로동계급은 지금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폭풍쳐 내달리는 맹렬한 돌격정신으로 주체철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 어머니당대회를 최상최대의 성과로 맞이할 혁명적기상으로 용감처럼 뛰어넘어가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총만되어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생눈길을 헤치는 최후병,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선구자가 되어 집단적열의를 불태우고 있는 우리 당의 직선주로를 힘차게 달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로동계급의 정신력발동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언제나 그들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며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쫓기모임이 3일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인 장소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과 당 제7차대회를 우리 혁명의 전례없는 최전성기로 빛내여갈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반영한 선전화물, 글발들이 세워져 있었다.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영국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2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작별 방편하여온 마이클 존 포드 주조 영국특명전권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결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적음

## 로동자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인민중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관동 피어있는 정치신조였다. 인민이 바라다보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둘어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위대한 사상으로 헌신의 찬란 리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이었다. <조선중앙통신>

덕성탄광 조급당위원회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조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에게는 원수님의 혁명 활동소식이 실린 당보를 가지고 당원들과 탄부들에게 들어가 그

자금을 모은 인민군대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연 전 행





# 체제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는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남당국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면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까.》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다같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부 못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 지난 8월의 북남고위급 긴급접촉이후 진행된 흥진 가족, 친척상봉과 여러 갈래의 긴급급접촉과 교류사업들은 대결의 강철을 깨고 북남사상들은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의 산물이다.

문제는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광범적인 태도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대화》와 《신뢰》에 대해 운하면서 실질 행동에서는 그와 반치되는 체제대결행동에 힘을 쓰고 매달리고 있다. 대결로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대화가 관계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구태연한 대결정책을 버리고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는 행위를 견제치워야 한다.

체제대결을 종식시키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조건이다.

체제대결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북남사이에서 불신의 장벽을 높이 쌓는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분열책동으로 둘로 갈라진지도 장래 70년 세월이 흘러갔다. 북과 남에서는 오래동안 고착되어온 서로 다른 제도가 있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대립하여 싸워야 할 리유로는 될 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동족을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한사코 대결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화해와 단합을 이룰수 없으며 통일 의 길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훼손한 반공화국모략과 도발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적대정책의 뚜렷한 표현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밤에 나가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체제대결을 노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는가 하면 제 집안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세운다, 《북인권법》을 제정한다 하고 분주함을 피우면서 《제도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소동에 갈수록 기세를 높이고있다. 최근에는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과서《국정화》를 내놓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역사와 눈부신 현실을 일깨우면서 사회진반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전통발전소소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도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범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야욕이 드러나고있다. 실제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들의 《대북정책》이 그 누구에 대한 압력강화와 그를 통한 연방화도 등을 위한것이라고 내 놓고 떠들어대고있다.

사상과 제도는 강요한다고 하여 받아들일것이 아니며 체제대결소용에 매달리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제도통일》을 실현하려 한다는것은 동족을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한사코 대결만을 추구하는 사대는 남조선당국의 체제대결야망과 그에 따른 군사적도발이 북남관계에 얼마나 엄청난 해독적효과를 미치고있는가 하는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체제대결책동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자기의 피와 살처럼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위협만족이러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지난 10월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저히 집안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세운다, 《북인권법》을 제정한다 하고 분주함을 피우면서 《제도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소동에 갈수록 기세를 높이고있다. 최근에는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과서《국정화》를 내놓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역사와 눈부신 현실을 일깨우면서 사회진반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전통발전소소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도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범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야욕이 드러나고있다. 실제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들의 《대북정책》이 그 누구에 대한 압력강화와 그를 통한 연방화도 등을 위한것이라고 내 놓고 떠들어대고있다.

체제대결을 종식시키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조건이다.

체제대결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북남사이에서 불신의 장벽을 높이 쌓는 민족반역행위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분열책동으로 둘로 갈라진지도 장래 70년 세월이 흘러갔다. 북과 남에서는 오래동안 고착되어온 서로 다른 제도가 있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대립하여 싸워야 할 리유로는 될 수 없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동족을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한사코 대결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 가도 화해와 단합을 이룰수 없으며 통일 의 길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훼손한 반공화국모략과 도발소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동족에 대한 적대정책의 뚜렷한 표현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밤에 나가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체제대결을 노린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미친듯이 매달리는가 하면 제 집안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를 세운다, 《북인권법》을 제정한다 하고 분주함을 피우면서 《제도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도발소동에 갈수록 기세를 높이고있다. 최근에는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과서《국정화》를 내놓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역사와 눈부신 현실을 일깨우면서 사회진반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전통발전소소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것도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범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야욕이 드러나고있다. 실제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들의 《대북정책》이 그 누구에 대한 압력강화와 그를 통한 연방화도 등을 위한것이라고 내 놓고 떠들어대고있다.

#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 만행은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보수집권 세력의 역사교과서《국정화》책동과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고 정의의 리를 따르려는 우리 공화국의 애국애족적립장은 시종일관하며 확고부동하다. 올해에도 우리는 북남관계개선의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고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남관계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개선되는것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체제대결소통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도전인 동시에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을 짓밟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결코 《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는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 체제대결소통에 계속 매달리면서 북남사이에서 온전한 대화가 진행될수 없고 관계개선이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은 불분모 명백하다.

북남관계개선에 백해무익한 체제대결의 리악을 반대하여 우리 공화국의 입장과 제도를 옹호하며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이룩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이든 기꺼이 손을 잡고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 도발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고 단호한 징벌을 가할것이다.

북남관계가 근본적인 개선의 길에 들어서게 마는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체제대결소통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북남관계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하여 선전 포고를 하였다. 《고 강령적 규탄해 나가고있으며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외국인들로부터 《남조선에서 가장 큰 위협은 비탄자족을 억압하는 박근혜의 탄압조치들이다.》고 비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폭압사태는 사대미국과 《유신》독재분할,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보수집권세력의 반역분자를 뿌리헤쳐 보려는 파쇼적당파들로서 인민해방민주주의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권은 인간의 마땅한 권리이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파쇼 탄압과 핏기가 그대로 피살이나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정의와 진리를 요구하는 수많은 진보단체들과 인사가들이 《리직》, 《중북》으로 불려 탄압당하고 합법적정당까지 강제해산당하고 있다.

동족을 찬양하였다고 하여 남조선주민들은 물론 해외동포들까지 파쇼악법인 《보안법》에 걸려 중세적적《마사시당》을 일삼는 파쇼탄압당도 그리고 사대미국과 《유신》독재를 미화분식하는 역사와 민족을 공포정치로 몰아가는 권력의 무덤도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인간생존적유인 남조선에서는 전 체 주민세대의 47%에 달하는

850여만세대가 세방이나 폭방, 비밀집 등 집 아닌 집에서 생활하고있으며 완전실업자는 450여만 명, 반실업자는 1000만명에 달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이 세계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권탄압지대로 전락한것은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 반민주적, 반인륜적통치가 빚어낸 필연적산물이다.

현실은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극악한 파쇼당파이다. 인민유린의 장본인이며 회색의 민주요살자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민심이 갈질하는 인권범죄자들이 기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넘볼치려 위고도 말이 없도록 다른 나라를 찾아다니며 《인권공조》를 구걸하는 것이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세계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은 현 보수집권세력에 항거하여 대중적투쟁을 펼쳐나가고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폭력은 분노하는 더 큰 항거와 투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저주를 면치 못하게 하였다.

주제104(2015)년 12월 3일  
평 양

# 제2의 《유신》 독재를 실현해 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개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11월 29일 《제2의 《유신》 독재의 개골을 실현해 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온 겨레의 강력한 반대극언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동을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세계 재중조선인들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전제미문의 역사쿠데타행위를 합리화하려고 천재 학교들이 리용하고있는 역사교과서들을 북을 찬양하거나 북의 주장을 그대로 서술한 내용들이 많다는니 뭐니 하며 동족을 로골적으로 접근하고있다고 담화는 규탄하였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에는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공화국에 대한 의욕과 그릇된 인식을 주입시켜 적대와 불신, 대결을 고취하며 저들의 독재통치를 합법화하고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꿈과 지향

을 철저히 짓밟아버리며 친미친 일사대대국경령》을 무한정 연장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고 폭로하였다.

보다 심각하것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책동이 단순히 《국정교과서》문제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보수 《정권》 영구집권을 위해 전인민적투쟁에 대한 파쇼적독압탄압을 로골화하고있는것이라고 담화는 가하였다.

담화는 이것은 남조선보수 집권세력이 파쇼독압과 북남 대결로 악명높은 《유신》 파쇼 독재를 부활시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술책들을 다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보수당국의 파쇼독압이 기세를 부리는 속에서도 남조선의 전인민적투쟁과 통일운동세력들은 불굴의 《유신》 독재가 되살아나것을 견결히 반대하여 격렬한 반 《정부》 투쟁을 벌이고있다고 담화는 덧붙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세계 재중조선인들은 보수당국의 력

사교과서 《국정화》 책동을 단호히 저지관망시키고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행동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력사의 진실을 악랄하게 왜곡하면서 신성한 교육미당까지 동족대결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려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의 반동적인 력사교과서 《국정화》 소동에 준엄한 철수를 내리기 위한 거족적인 진진항쟁에 총력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보수매담이 《국정화》의 간판밑에 악착스럽게 벌리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준열히 단죄관망하며 이를 무자비하게 정벌하기 위한 전민적투쟁에 한사코 동참하기를 결심하고있다.

남조선의 보수당국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력사교과서 《국정화》 소동이 저들의 파멸만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상임을 벌리고있다고 담화는 덧붙였다.

《유신》 독재부활책동을 당장 견제치워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 대평 레로장본인의 망언

남조선집권자가 또다시 세치 혀를 잘못 놀려 만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 무슨 《법률개혁시위》에 대해 한바탕 떠들던 그가 가면을 쓰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테로분자에 비유한것이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든 격의 파렴치한 망언이 아닐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테로행위가 강행되고있다면 그것은 보수당국의 부추김벌에 파쇼적인 인민탄압에 광분하고있는 경찰대리들의 악행이다.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로동자와 농민,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며 중상을 입힌것도 경찰청장들이며 시위자들을 마구 폭행하며 강제연행해간것도 그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집권자가 저들의 반역책동을 단죄규탄하는 시위참가자들을

테로분자와 동일시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제 일곱 더러운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라려는 식의 해괴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폭압무력을 동원하여 인민들의 정당한 시위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것은 《국가테로》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결국 남조선집권자는 《테로》니 뭐니 하며 인민탄압을 정당화하고 집권위기를 모면하려고 테로장본인으로서의 자기 정체만 드러냈다.

남조선집권자가 이제 인민들을 모독하는 망언을 한번만 더 했다가는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지 모를판이다. 하지만 누구를 닮았겠도 없다. 제 스스로 청한 불면이기때문이다.

【조선중앙통신】

# 국제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 진행

국제장애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모임이 3일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장애자보호평등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하국보건장, 관계부서 인공물, 장애자들, 가족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주요 유럽동맹국 조대표부부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 성원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2015년 장애자 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소개된 다음 장애자에해수 조원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애술소조원들의 공연이 있었다.

온성증창 《조국찬가》, 가야금 독주 《올레야》, 춤과 노래 《행복의 매일》,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어머니당과 김대중 사회주의조국의 보살핌속에서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행복넘친 모습을 감동있게 펼쳐보였다.

시력, 청력, 지체장애자들이 전문애술인들 못지 않게 손놀림과 가야금을 타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스민민주주의공화국 특별전권대사, 팜 비엣 흥 헬날사회주의공화국 특별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 김일성사회주의혁명동맹대표단 귀국

이 3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성룡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손잡고 인사차리 조 조 대표단 귀국하였다.

스민민주주의공화국 특별전권대사, 팜 비엣 흥 헬날사회주의공화국 특별전권대사가 마중하였다.

#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도차

【조선중앙통신】

# 이권불만저에서 영웅이 되겠다

이것은 유모 아도, 소실의 한 대목도 아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어느 한 아바 트승차원에서 있는 일이다. 승강기안에는 어린 총각애와 처녀애 그리고 한 신문 기자가 있었다. 기자가 처녀애에게 물었다.

《멋스러운가요?》

《멋스럽습니다. 래년이면 학교에 가게 돼요.》

이때 옆에 있던 총각애가 마작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느라 하였다.

《너도 인차 지옥으로 들어 가게 되겠구나.》

깜짝 놀란 기자가 총각애에게 물었다.

《한 학교에 다니니?》

《초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막 지옥같아요.》

순진한 총각애는 너무나도 커져가 먼 그의 말에 기자는 아연하였다.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하면서 기자는 이렇게 썼다.

《학교다니기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아무 거침없이 학교를 지옥이라고 말하겠는가. 아이들의 마음이 이처럼 어두워나오면 이 사회는 어찌 될것인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그 어떤 미래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다.》

순진하고 천진만만하여 호기심이 많은것과 같은 어린이들이 살기를 동심이라고 한다. 해당 사회의 문명정도와 앞날은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놀면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사회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망을해 사 들어가고있다.

자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행복추진과 관련한 세계적인 조사에서 남조선은 여러해째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있다. 열마진 유럽의 한 조사기관이 열여섯 나라와 지역의 8-12살 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2015 좋은 유년기보고서》에서도 남조선은 최악의 어린이불행지역으로 꼽혔다. 더우기 초등학교학생 10명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끼적 이었다는 자료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

# 《집권자 퇴진하라!》, 《경찰청장 파면하라!》 폭력진압만행의 원흉을 징벌하기 위한 투쟁

당국이 민족을 상대로 선포한 전쟁이 가져온 필연적비극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농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거리의 락업을 청소하듯이 탄압한 파쇼경찰과 현 《정부》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민중총력기투쟁본부, 진보연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의 핵심성원들도 서울에서 통일투쟁을 벌였다.

투쟁에 앞서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민중총력기투쟁당시 최후의 시위 물대포를 쏘아대어 한 농민을 사상에 몰아넣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무방비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고압물대포를 발사한것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이어 경찰이 부상자를 호송하는 시민들과 구급차에 까지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며

판기를 부렸다고 폭로하면서 경찰의 이러한 만행은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였다고도 말리 불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경찰의 이번 살인진압만행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죄와 경찰청장의 파면이 실현되지 않으면 경우 통성투쟁은 계속될것이며 그것은 대중적인 민중항쟁으로 번져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수십개계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초보적인 생존권이라고 보장하라 고 웨치는 민중에게 경찰은 살을 무릎을 토하면서 경찰이 이번 민중총력기투쟁때 사용한 시위 진압용물대포는 독재사회에서 만 사용되여온 살인무기라고

거기까지 민중앞에 백배로 사죄하고 퇴진할것을 요구하였다.

민중총력기투쟁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만행을 규탄하는 투쟁은 해외에서도 벌어지고있다.

미국의 로스앤젤스에 있는 남조선총학생사관에서 재미동포들이 집회를 열고 남조선당국과 파쇼경찰의 살인적인 폭압만행을 규탄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남조선경찰의 무자비적인 탄압에 대하여 폭로하면서 독재정권의 하수인인 경찰당국은 민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탄압을 일삼으며 미쳐들어가는 살인진압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인민들의 정당한 항의투쟁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야만적인 폭력진압은 국제적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중총력기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해외에서도 힘찬 연대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라영국

# 미레가 짓밟히는 지옥같은 세상

행의 구성으로 통하고있으며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극심한 빈부 격차와 무거운 학비부담으로 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에 퇴학하는 초, 중, 고등학교학생수는 무려 7만 명이나 된다.

미레를 담보해야 할 신성한 교정도 범죄의 온상, 악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의 머리를 당겨서 마구 짓조아 의식을 잃게 한 사건, 울산시의 초등학교에서 2학년 녀학생을 마구 때려 문몸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 등 온갖 끔찍한 인권 유린행위가 다름아닌 교정에서 벌어져 감행되고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때려죽인 사건, 울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폭행에 못이겨 투신 자살한 사건 등 상상도 못할 학교폭력이 매년 평균 2만여 건씩 발생하고있다.

# 세월호 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보수정부를 규탄

남조선의 4.16 편대 4월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월호》참사위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당국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얼마전 《세월호》에서 추진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 《지침》 형식으로 적혀진 해양수산부의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언급하였다.

문건에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결

# 이권불만저에서 영웅이 되겠다

이것은 유모 아도, 소실의 한 대목도 아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어느 한 아바 트승차원에서 있는 일이다. 승강기안에는 어린 총각애와 처녀애 그리고 한 신문 기자가 있었다. 기자가 처녀애에게 물었다.

《멋스러운가요?》

《멋스럽습니다. 래년이면 학교에 가게 돼요.》

이때 옆에 있던 총각애가 마작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느라 하였다.

《너도 인차 지옥으로 들어 가게 되겠구나.》

깜짝 놀란 기자가 총각애에게 물었다.

《한 학교에 다니니?》

《초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막 지옥같아요.》

순진한 총각애는 너무나도 커져가 먼 그의 말에 기자는 아연하였다.

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전하면서 기자는 이렇게 썼다.

《학교다니기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아무 거침없이 학교를 지옥이라고 말하겠는가. 아이들의 마음이 이처럼 어두워나오면 이 사회는 어찌 될것인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그 어떤 미래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다.》

순진하고 천진만만하여 호기심이 많은것과 같은 어린이들이 살기를 동심이라고 한다. 해당 사회의 문명정도와 앞날은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놀면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꽃피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사회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망을해 사 들어가고있다.

자리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행복추진과 관련한 세계적인 조사에서 남조선은 여러해째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있다. 열마진 유럽의 한 조사기관이 열여섯 나라와 지역의 8-12살 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2015 좋은 유년기보고서》에서도 남조선은 최악의 어린이불행지역으로 꼽혔다. 더우기 초등학교학생 10명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끼적 이었다는 자료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

# 이권불만저에서 영웅이 되겠다

행의 구성으로 통하고있으며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온갖 사회악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극심한 빈부 격차와 무거운 학비부담으로 하여 수많은 학생들이 배움을 포기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에 퇴학하는 초, 중, 고등학교학생수는 무려 7만 명이나 된다.

미레를 담보해야 할 신성한 교정도 범죄의 온상, 악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이 학생의 머리를 당겨서 마구 짓조아 의식을 잃게 한 사건, 울산시의 초등학교에서 2학년 녀학생을 마구 때려 문몸에 피멍이 들게 한 사건 등 온갖 끔찍한 인권 유린행위가 다름아닌 교정에서 벌어져 감행되고있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때려죽인 사건, 울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폭행에 못이겨 투신 자살한 사건 등 상상도 못할 학교폭력이 매년 평균 2만여 건씩 발생하고있다.

# 이권불만저에서 영웅이 되겠다

이 권력에서 추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항의편지가 발송되었다.

편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증거문서인 레야산부 문건을 작성하고 그 레야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가를 밝혀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월호》호참사가족들과 연대단체들은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싸울것이라고 편지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이권불만저에서 영웅이 되겠다

집권세력의 반인권적저서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집권세력의 반인권적저서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 중동사태가 국제사회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중동지역이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들었다. 몇몇 지역은 여러 나라들에서 정전분봉과 폭력 시작된 내전과 여러 정치세력들과 종교 및 교파사회의 치열한 물리적 충돌은 여전히 지속되고있다. 어떤 나라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에 빠져 국가의 존재자체를 유지하지 못하고있다. 정부의 통제적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무정부상태가 조성되었다. 지역나라들의 정국은 파국적상태에 놓여있다.

유형적인 전란으로 삼의 보급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뿌리며 정든 고향을 떠나 류량의 길에 오르고있다. 소할 피난민들이 유류로 물밀듯이 밀려들어가고있다. 유럽은 피난민대란으로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서 되었다.

유럽으로 건너간 피난민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 한실한 수용시설에서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다. 《불행이 주님》, 《노예》로 비비되고있다. 차량들이 정적처럼 길에 깔려다니는가 하면 배를 맞은 등 인권이 무장히 유린당하고있다.

피난민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되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하루빨리 중동지역정세 안정되어 이 지역 사람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있다.

지금 일부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어떻게 하여 중동지역정세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었는가를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을 표시할것도 놀라할것도 없다. 그것은 중동지역정세의 악화와 피난민대란이 돌발적인것이 아니기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은 몇몇 전대 중동의 일부 나라들이 정책작성에서 주권을 세우지 못하고 사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식의 발전의 길을 포기하였을 때, 여러 나라들에서 《백갈혁명》이 일어났을 때 벌어진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예견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중동에서 벌어진 사태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수 있다.

중동나라들이 말하면 많은 자연부원과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생산물이 많은 나라, 1인당 국민소득액이 높은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있었다. 또 이 나라들은 이것을 자랑하면서 제반에는 국력이 강한 나라라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다.

리비아만 놓고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유생산국으로서 지난 시기에는 원유자원을 국유화하고 그것을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적극 이용하였다. 사계절 리비아식으로 건설하였는 구조물이나 원유공업을 증추로 하는 인공섬토대축성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다. 반제국주의적인 립장을 견지하고 미국의 반리비아운동에 맞서다가면서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었다. 이것이 좋은 결실을 맺어 리비아인들의 생활은 나날이 윤택해졌으며 사회적인합이 이루어졌다. 아프리카에서는 리비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국방력도 비교적 강한 나라로 인정되어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 이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는 가 하는것이다.

여기에는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지역 나라들을 저들의 손에 틀어쥐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악랄한 행동이 크게 작용하였다.

내부와외부의 파편적력으로 비유에 거슬러는 나라들의 정권을 뒤집어엎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전략이 아니었다. 오레브린 반제국주의의 길로 나가는 리비아를 좋지 않게 보아온 미국은 이 나라를 그러한 전략실행을 위한 대상의 하나로 삼았다.

미국은 각종 방송과 출판물들을 리용한 사상문화침투를 통해 이 나라 사람들을 사방에 대한 환상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였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민주주의세력》으로 둔갑시키고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주면서 《백갈혁명》으로 내몰았다. 한편으로는 이 나라 정부에 서방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일것을 강요하면서 전쟁역력

까지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나중에는 무력까지 동원하여 이 나라를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렸다.

미국은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을 적용하였다.

미국은 사후에 일어난 《백갈혁명》은 여러 중동지역 나라들을 유형적인 민족 및 종교분쟁과 무질서와 혼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었으며 오늘과 같은 피난민대란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침략자라 할수 있다. 중동지역을 소련스럽게 만들고 피난민위기를 심각한 인권문제로 산생시킨 장본인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내정간섭책동이 없었다면 중동지역에 오늘과 같은 협박한 사태가 조성되지 않았을것이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에 대해서는 력사가 정확하게 판정할것이며 응당한 책임주궁을 하게 될것이다.

오늘 중동지역 나라들에서 사회정치적인파괴되고 피난민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 지역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환상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대로 서방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데도 원인이 있다. 이 지역 나라들은 새 사회건설과정에 일시적인 난관이 조성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의 《원조의 덕》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다. 매개 나라마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자기의 고유한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정치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정체를 조성해서 언제나 주권을 똑바로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중동지역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중동지역은 이 모든것을 고려하지 않고 서방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였으므로 부르조이사상문화의 침입을 허용하고 외세의존의 길로 나갔다. 결과 이 나라들에서는 온갖 퇴폐적인 부르조이사상사상이 쓸어들고 악육강식의 생존경쟁이 부시되어 사회질서를 평등과 모순을 심화시켰다. 이것은

그대로 교과관, 종족간의 대립과 모순으로 번져갔으며 사회는 사분오열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그 무슨 《개혁》을 요구하고 반정부세력들을 자금과 무기까지 대주면서 소요로 내몰았다. 이로 하여 일부 나라들에서는 정권이 무너지고 정치세력들과 각과 및 종족들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는 유형현상이 벌어졌다.

중동지역의 실태는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

그것은 반동적인 부르조이사상문화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는것이다.

지난날에는 침략의 길잡이노릇을 하던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으로 높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은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통하여 군사적침략이 포기하기 힘든 침략목적에 손쉽게 달성하고있다.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적으로 내정간섭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백갈혁명》을 통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뒤집어엎고 친미정권을 세웠다. 미국은 이것을 놓고 《무혈혁명》이라고 내세고 말하고있다.

중동지역의 피난민사태는 자주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해주고있다.

그것은 외세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 서방식 《민주주의》와 사상문화침투를 허용하면 정치정위와 국가의 파멸방향이 차례질것이었다는것이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끝까지 맞서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힘을 키우고 침략을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것이다. 나아가 자기 일당 미련없는 자기의 제도를 견지할, 갖추어놓은 군사력을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중동사태가 보여주는 력사적 총화이며 세계에 울리는 경종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식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현혹되어 적지 않은 환상을 가지고있었다. 그러하다 미국이 불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 등 허울 좋은 구실비에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을 때에도 검은 속심을 보지 못하고 실마 하면서 맞서싸움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총각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피난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동사태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첫째도 둘째도 국방력강화를 힘써 넣어야 한다는것이다. 지난 시기 중동지역의 일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과 침략의 대상으로 된것은 바로 자기 힘을 강화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 지역 나라들은 대국들에 기대를 걸고 제한을 기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어떤 나라는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역력까지 포기하는 바보짓을 하였다.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였다. 이것은 강한 전쟁역력, 물리적힘이 없으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동지역의 피난민사태는 자주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나라들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해주고있다.

그것은 외세에 대한 환상은 죽음이 서방식 《민주주의》와 사상문화침투를 허용하면 정치정위와 국가의 파멸방향이 차례질것이었다는것이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끝까지 맞서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힘을 키우고 침략을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것이다. 나아가 자기 일당 미련없는 자기의 제도를 견지할, 갖추어놓은 군사력을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중동사태가 보여주는 력사적 총화이며 세계에 울리는 경종이다.

# 여러 나라 출판도물들 찬양

이 행정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 나라 어머니들이처럼 당과 국가의 크나큰 은정과 혜택속에 자주적존엄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적극 헌신해가는 녀성들은 없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 나라에 훌륭히 내세우는 모성영웅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일터마다에서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녀성과학자, 교육자, 로력현신자들... 하기에 세계 여러 나라 출판도물들은 한가정의 꽃이요 어머니의 사랑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려오는 우리 어머니들의 행복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널리 소개하고있다.

도이칠란드판예연단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있다. 일제강점기에서 시들이가는 김정은의 모듬처럼 처량하던 조선의 녀성들이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 주님과 김정일 대원수의 품속에서 혁명의 난금기들마다에 시대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며 보람찬 삶을 누려왔다. 오늘 조선의 어머니들은 경제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값있는 삶을 빛내이며 강국건설에 적극 열쳐 나가고있다.

나이제리아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권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조선당정부의 시책에 따라달려온 녀성들이 애국자, 영웅으로, 시대의 선구자로 긍지높은 삶을 누려왔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녀성들의 존엄과 긍지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높은 경지에 이르러 되었다. 세상에 들도 없는 로동자궁전으로 솟아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과 녀성들의 건강을 위해 새로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등 이른 곳마다에 녀성존중의 혜택이 해마다에 더해주고있다. 《녀성들의 호렷》, 《조선어머니들의 존엄과 긍지》 등의 제목으로 광범히 소개전하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는 녀성병들의 예방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관적인구지이다. 조선녀성들의 건강을 위해 늘 마음쓰이던 김일성각하의 유언을 받들어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신분은 바로 김정은령도자이다.

누구나 무료로 치료받으며 높은 수준의 의약품들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있다. 은혜로 사회주의보건의료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조선의 어머니들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행복찬 녀성들이다. 영구선진국정지연구협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정을 대를 이어 포파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들의 생활조건을 보다 훌륭히 마련해주시기 위해 합숙을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하여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침실, 욕구탕, 미용실, 상점, 치료실, 도서실을 비롯한 시설들과 휴식과 체육을 마음껏 할수 있는 공원이 훌륭히 갖추어진 로동자합숙이 짧은기간에 세워졌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은 김정은원수님의 손길과 태어난 녀성로동자의 사랑의 궁전이고 행복의 집이며 정다운 보금자리이다. 【조선중앙통신】

# 일본당국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에 성근하게 나서야 한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권위원회가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일본당국이 홀바로 반제와 립장에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글은 얼마전 일본수상과 남조선전권자 회의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조기》를 위해 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하자》고 밝혔던 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조선의 일본

군성노예피해자들은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아시아 각국의 피해자들과 관련단체들속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일본군성노예피해는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수 많은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고 전쟁마당에 끌고다니며 온갖 비인간적행위를 강행한 특대형의 국제적인 반인륜범죄행위이다.

지금도 조선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해역들과 저 지역은 내몰림당대에가지 않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생존해있으며 그들은 일본정부와 성노예범죄에 대하여 홀바로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모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하며 력사교육을 홀바로 반영하는 등의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 범죄의 재발방지를 국제사회에 확약해야 한다.

일본당국은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자기의 력사적, 국가적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세계의 모든 피해자들에 납득할수 있도록 성근하고 책임있는 자세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 지역에 대해 발전할수 있다고 하면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일본에서 영구인들속에서 유류분쟁으로부터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최근 이 나라 신문 《인디펜던트》가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함에 의하면 응답자의 52%가 영구국이 동맹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최근 배리에서 일어난 립국적인 테로공격사건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는데 기인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지금도 조선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해역들과 저 지역은 내몰림당대에가지 않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생존해있으며 그들은 일본정부와 성노예범죄에 대하여 홀바로 사죄하고 배상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다말게 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전략은 또한 환경과 자연부원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수력발전소건설 라오스의 루앙 프라방주에 최근 수력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었다. 11월 28일 발전소건설완공과 관련한 의식이 진행되었다. 중국의 협조로 건설된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13만kW에 달한다. 발전소는 나라의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한편 잠비아에서 전력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어른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6%가 돈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되는 나라의 정치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다.

향의 집회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11월 29일 당국의 그릇된 환경정책을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들은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기후변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뒷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조선

평양에 펼쳐진 특색있는 거리

도이칠란드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도이칠란드판예연단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새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선에서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속에 평양의 대동강변에는 미래과학자거리가 새로 일떠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미래과학자거리는 당장전 일흔들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이 교육자,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는 은성 어린 선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위대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거리를, 문명회화가 더욱 활짝 꽃피는 시대에 수도 평양에 펼쳐진 조선식의 특색있는 거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미래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은 공동살림방,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 고급가구와 비품들을 갖춘이 갖추어져있다. 각종 상업, 금양,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휴생시설들도 시대적미감에 맞게 특색있게 건설되었다.

평양의 면모는 더욱 일신되게 되었다.

민주공고단체 미래과학자거리 소개

높이 내세워주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건설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시며 볼수록 멋있고 웅장하며 한가롭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리,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완비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거리를, 문명회화가 더욱 활짝 꽃피는 시대에 수도 평양에 펼쳐진 조선식의 특색있는 거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섬으로써 총지휘하던 수도 평양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인류앞에 닥쳐온 위기-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산생시켰다.

원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효과가스를 대량으로 방출시키는 결과로 초래하였던것이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파국적후과

지구온난화로 지금 세계곳곳에서 얼과 녹아 버리고, 가뭄 등 의한 자연재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되고있다.

북극지방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다른 곳보다 특별히 더 받고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일 지구온난화가 보다 심해지게 되면 바다면의 메탄이 대기중으로 대량 방출되어 지구온난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이것이 전세계에 60조USS의 손실을 가져다줄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되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는 지구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2050년에서 가서는 지구상의 생물자원의 20-30%가 멸종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바다물의 산성화와 물온도의 상승을 촉진하여 물고기잡이량이 15%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2C 더 상승하게 되면 아프리카의 사하라가남지에서는 식량부족현상이 보편화될것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산생시켰다.

원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효과가스를 대량으로 방출시키는 결과로 초래하였던것이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파국적후과

지구온난화로 지금 세계곳곳에서 얼과 녹아 버리고, 가뭄 등 의한 자연재해들이 빈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되고있다.

북극지방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다른 곳보다 특별히 더 받고있는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일 지구온난화가 보다 심해지게 되면 바다면의 메탄이 대기중으로 대량 방출되어 지구온난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 이것이 전세계에 60조USS의 손실을 가져다줄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발표되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는 지구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2050년에서 가서는 지구상의 생물자원의 20-30%가 멸종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바다물의 산성화와 물온도의 상승을 촉진하여 물고기잡이량이 15%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2C 더 상승하게 되면 아프리카의 사하라가남지에서는 식량부족현상이 보편화될것